

### 입지는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입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나요?

-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를 통해, 현재의 제주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이 결정되었습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과학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3단계의 평가를 거쳐 상안읍을 최종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역, 기장, 장애물, 소음, 환경, 접근성, 지형조건, 주변 개발계획, 공공자원시설평가, 확장성

31개

10개

4개

최종 1곳 선정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 곳 선정

'신도' 후보지 등 다른 대안은 없었나요?

'신도' 후보지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기 위해 활주로 방향을 변경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활주로의 위치를 미세하게 변경시키는 활주로 최적화 과정은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김해신공항도 동일)
- '신도' 후보지도 오픈 해운 최소화, 천연기념물인 수필봉 훼손 방지, 대정읍 소음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활주로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신도' 후보지는 왜 탈락한건가요?

- '신도' 후보지는 활주로 최적화에도 불구하고 '성산' 후보지보다 소음, 환경성 등에 불리하다고 평가되어 탈락되었습니다.

'정석 비행장'을 확장하여 사용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으로 선정할 경우, 항공기가 진출입하는 경로가 현 제주공항 경로와 겹치게 되어 위험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또한 정석비행장은 중신간에 위치하는 만큼 잦은 안개 등으로 대규모 민간 항공기를 처리하기에는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여 사용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여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바다로 1.3km 떨어진 곳을 매립해야 합니다.
- 그럴 경우 대규모 해안훼손, 풍사 및 운명기근 중 극심한 차랑 혼잡, 대규모 사립비 등이 우려되어 대안에서 탈락하였습니다.

### 궁금해 하시는 점, 사실은 이렇게입니다

주변에 오름이 많다던데, 안전한 비행이 가능할까요?

- 예정지내 오름은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수산봉을 포함한 주변 오름들은 활주로 양 옆에 있어,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경로와 관계가 없습니다.
- 항후에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및 국내의 기준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항로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항공기 안전이 확실히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동굴, 칠새도래지 등 자연의 훼손은 없는건가요?

- 환경친화적인 공항을 계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예정지내 동굴이 2개소(신방굴, 서공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동굴들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굴의 경우에도 예정지내로 뻗어 나오는 굴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 항후에도 과학적 조사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굴 존재 여부를 조사해 나가고 보존 등 적절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칠새도래지도 예정지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칠새 보호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음영향지역에 대한 평가, 소음피해대책은?

- 소음을 최소화하고, 대책을 만일해 마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본계획 과정에서 정밀하게 소음을 예측하고, 특히 소음 최소화를 고려한 항로 설정,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만 현행 법·제도에 따른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 제2공항에 군 시설이 들어오나요?

-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군 공항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 지역 성장의 원동력

## 제주 제2공항

국토교통부 KAC 한국항공공사

### 제주 제2공항 왜 필요할까요?

LCC 성장, 국내의 관광객 증가로 인한 기존 제주공항 용량 한계

여객처리능력

여객처리실적(2018)

국내

2,740만명

2,756만명

국제

435만명

190만명

국내선 여객 최근 5년간 연평균 7.1% 증가

단일 활주로 기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여객처리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하늘길 (서울-제주노선)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공형이용 불편 해소 필요

기상여건 혼잡 등으로 인한 지연, 결항 빈번

제주행 비행기포 구하기 어렵고, 가격이 비싸지는 현상

장래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한 대규모 인프라 확충 필요

여객처리능력

3,175

3,391

3,839

4,047

예비타당성조사(KAERI, 2017) 기준 (단위 : 만명)

### 제주 제2공항 이렇게 지어집니다

추진경위

제주항공수요조사

제주항공수요 대이력 마련

2014년

제주신공항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채택

2012년

사전타당성조사

2025년 공항을 목표로 제2공항 건설 발표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B/C 1.23, AHP 0.664로 타당성 확보

2017년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7년 - 2025년  
건설공사 2021년 ~ 2025년 개항 2025년

총사업비 4.87조 원  
공항시설 4,05조, 보강비 0.82조원

사업규모 2,500만명(년) 수용 규모 신공항 건설

- 활주로 1본 신설(3,200m)
- 주기항 59대
- 터미널 신축(2,500만명)
- 국내선 84,000㎡, 국제선 61,000㎡
- 주차장 3,500면 신설
- 국내선 50% + 국제선 100% 처리

시설배치도

### 제주 제2공항이 가져올 변화가 큼니다

접근편의개선

제주 남부지역(서귀포)에 대한 접근성 개선, 위험 항공편 증가, 항공시간 경쟁을 통한 항공편 가격인하 효과

지역균형발전

자치도 주도의 주변지역 복합개발 등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제주 동부지역의 생활수준 향상 기대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지수
1조7,959억원	12.9%

일자리창출

건설기간 뿐만 아니라 항후 공항운영을 통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고용유발효과	운행기간
건설기간 49,619명	25,510명

예비타당성조사(KAERI, 2017) 기준

### 제주 제2공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공항개발사업은 타당성조사 이후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 공사, 개항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설계에서 시공까지 6년 가량 소요됩니다.
- 제주 제2공항은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고시 후, 2020년 설계를 시작하여 2025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무엇보다 제주 제2공항을 통해 국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

2020

2021

2025

기본 계획 수립/고시

설계

건설공사

개항

## Jeju 2nd Airport

제주 제 2공항 리플렛

2019. 02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한 설명

### DESIGN ORIENTATION